

서정원의
## 불교미학산책

① 연재를 시작하며

# 동국대, 불교미학으로 풀어내다

**1839년에는 산책 나갈 때 거북이를 데리고 가는 것이 우아해 보였다. 이것은 아케이드를 어떤 속도로 산책했던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아케이드 프로젝트〉, 발터 벤야민–**



서울 동국대 전경. 사진출처=동국대 홈페이지 홍보갤러리

**동국대, 거대한 '불교 아케이드'**
**정각원, 만해碑, 4.19동우탑 등**
**불교 역사 흔적들이 곳곳 산재**

걷기 자체가 각광받는 오늘이다. 걷기 명상, 맨발 걷기, 걷기 순례, 만보 걷기 등등, 갖가지 걷기와 관련된 조어를 매일의 아침신문 머리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만 걷는 일을 명상을 위해 하든, 건강을 위해 하든, 순례를 위해 하든,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은 모두가 똑같다.

그런데 산책도 걷기의 한 갈래이지만, 걷기 산책, 산책 걷기라고 이름 하지는 않는다. 아마 산책은 걷기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지 수단으로 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목적 없이 걷는 산책자는 목적을 가지고 걷는 자보다 우월한 특권이 있다. 바로 미적 특권이다. 목적을 가진 걸음들은 그 통과하는 거리를 해석하게 된다. '나는 약속을 위해 5분 내로 저곳을 통과해야 해' '나는 건강을 위해 몇 보를 걸어야 해' 등등. 그 해석 속에서 걸음은 융해되어 사라져 버린다. 하지만 산책자는 목적이 없이 풍경을 자신의 심상 속에 소화해 내지 못하고 결정화(結晶化) 시켜간다. 마치 조개가 미처 뱉어내지 못한 뻘이 진주가 되듯이, 그리고 산책자는 이 진주 조개들을 잡는 어부가 되어 자신이 골라낸 진주들을 시장에 설명하는 이야기꾼이 된다.

불교전문매체에 불교미학산책이라는 칼럼 이름에서 '산책'에만 너무 힘을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눈치가 빠른 분이라면 불교이든 미학이든 내가 걸어가는 산책 위에서 풍경들을 결정화하는 구조라는 걸 아셨으리라 생각된다.

미학은 산책자가 자기 안의 알레고리(allegory)로 풍경을 결정화하는 현상을 말하며, 불교는 '나'라는 산책자가 무수한 풍경 중, 어떤 순간의 인식만을 결정화할 대상으로 선택하는지의 기준을 말한다. 즉 객관적으로 펼쳐진 세상을 자의적(恣意的) 판단과 자의적 기준으로 긴장상태에 놓고, 그 긴장을 해석으로 풀어내기보다는 해소되지 않는 단단한 진주로 바라보는 것이 본 칼럼의 미학적 산책이다.

미학에 대해서도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미학이라 하면 예술품과 관련하여 적정한 가격을 매기는 것, 혹은 작품에 얽힌 여러 갈래들을 풀어놓는 것과 같은 예술철학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예술철학 또한 미학의 중요한 갈래이지만 우리에게는 조금 더 큰 정의가 필요하다.

미학은 아도르노가 '미학이론'에서 말했듯이 인식론에 가깝다. 우리는 대상물을 인식하는 가운데, 왜 어떤 특별한 것에만 미(美)를 느끼는가? 즉 미에 대한 인식을 다루는 것이 미학이다. 우리의 인식에서 아름다움을 주는 것은 예술품만이 아니다. 관계에서 느끼는 숭고미도 있고, 펼쳐진 산과 바다의 자연미도 있다. 아니 오히려 아름다움을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걸구하는 예술품은 지루하다. 플라톤은 영웅의 숭고미와 산천초목의 자연미를 예술로 노래한 시인들을 공화국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산책자는 공화정에서 추방당해야 할까?

이 질문은 뒤로하고 나에게 다시 '미에 대한 인식'으로서 미학은 '고(苦)에 대한 인식'으로서 불교와 긴장관계를 이룬다. 물론 둘이 구명하고자 하는 대상인 미는 특수하고, 고는 보편적이며, 인식 또한 한정된 특정 상황을 다루는 미학과 전반적 일반상황을 다루는 불교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뜸 고통만을 이야기한 붓다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매력적인 32가지 육체적 특성을 가지고, 누구나 빠져들 수밖에 없는 목소리로 이야기한다는 수사가 어디에나 보인다. 왜 그는 가장 아름다운 몸가짐과 목소리로 가장 질박하고 퉁명스럽게 세상에 털 한 올만큼도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였을까?

나는 지금 내가 잡아낸 진주 두 알을 이야기해 보았다. 산책자는 어떤 쓸모가 있는지, 절대적 아름다움인 붓다가 왜 고통만을 이야기했는지다. 이 두 문제는 논문식으로 풀어 이야기하자면 어떻게든 나름의 해석을 얻게 되고 나는 그다음 문제를 찾아 나가게 될 것이다. 어쩌면 그 이후에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 문제가 되어 다시 떠올려 보았자 시시콜콜한 질문이었다며 대수롭지도 않게 굴 수도 있다.

나는 이런 점에서 해석에 반대한다. 종교에 있어서 해석은 곧 죽음이다. 이상과 구원의 이야기가 현실과 겪는 갈등과 모순이 바로 종교라는 진주다. '그대들 모두 붓다가 되리라'라는 말을 상불경보살이 매를 맞아가며 소리치지만 경전 어디에서도 왜 그대들 모두가 붓다가 되는지 해석하지 않는다. 다만 상불경의 심상에 저 문장이 결정화되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이물감에 괴로워하며 단말마를 외칠 뿐이다. '그대들 모두가 붓다가 되리라'.

올해 지면을 빌어 독자님들과 산책할 곳은 동국대 서울 교정이다. 즉 아무런 목표가 없이 그저 동국대를 걸어볼까 한다. 단순히 걸음이 닿는 곳마다, 시선이 멈추는 곳마다 결정화되어 남는 어떤 인상들만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한다. 그것도 거북이의 속도로 가야 할 듯하다. 산책할 장소로 정한 동국대는 거대한 불교 아케이드이다. 물론 동국대는 하나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지도 않고 건물마다 산책자의 길을 일방향으로만 가게 구성되어 있지도 않지만, 이를 아케이드라 부르는 것은 학교가 지나온 120년의 세월 동안 품어온 불교의 다양한 면이 우발적으로 있기 때문이다.

사찰은 창건주의 정신에 따라 큰법당을 중심으로 영취산의 봉우리를 우뚝 세우든지, 해인의 순례길을 열든지 한다. 즉 사찰의 불교는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게 배열되어 있다. 이는 거대한 회랑이지 아케이드라 할 수는 없다. 그런데 동국대는 그렇지 않다. 불교를 탄압한 이조의 궁궐을 뜯어다 지은 정각원, 왜색불교를 거부한 만해의 비석, 불교의 이름으로 독재를 타도하고자 한 4·19동우탑 등등. 즉 동국대에 남아있는 불교란 어떤 학교 자체의 규칙이라기보다는 서러움, 자긍심, 구심점으로서 불교가 시대마다 다른 역할을 하며 힘겹게 지나온 세월의 돌발적 흔적에 가깝다. 인위적 편집이라기보다는 시대적 상흔인 것이다. 이런 불교의 수장고인 동국대 교정을 산책하며 필자와 독자 사이의 진주목걸이를 일 년 동안 꿰어보고자 한다.

**서정원** 박사는
동국대 대학원에서 『법화경』의 미학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동국대와 한림대에서 강의하고 있다.

# 말법시대, 중생 구제에 천착하다



법공 스님의
## 〈지장십륜경〉 강의

② 지장십륜경과 삼계교

오늘은 〈지장십륜경〉과 '삼계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앞서 인도에서 발생한 '지장' 내지 '지천' 사상이 대승불교에서 그 사상이 체계화 됐고, 이를 담아낸 경전이 〈지장십륜경〉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그러한 인도에서 유래된 지장사상이, 중국에서는 어떻게 발전했으며 또한 그 실천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장신앙을 그 경전과 함께 활발하게 유포시킨 종파는, 중국불교의 13개 여러 종파 중에서 '삼계교(三階教)' 라는 종파입니다. 삼계교의 종조는 신행(信行, 540~594)으로서 유독 실천성이 강한 불교종파의 하나였습니다.

먼저 삼계교의 '삼계(三階)'란 시(時)·처(處)·인(人)을 말하며, 그 시대상황(時)을 부처가 없는 말법의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또 거주하고 있는 처소(處) 또한 말법의 탁한 사람들이 거주한다는 것이며, 사람(人)들은 그 말법시대의 탁한 사람들로서, 불법을 모르는 극악무도한 사람들로 이들을 어떻게 구제하는가에 삼계교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듯 삼계교는 철두철미한 실천적 행동으로 민중을 향해 다가섰던 종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불시대에서의 신앙도 오로지 '지장보살'을 칭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의 시대인식을 올바로 세우려 노력하고 '지장신앙' 정진에 힘쓴 삼계교는 뜻밖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수나라와 당나라 시기에 걸쳐 400여 년간 전법을 금지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불교의 모든 전적(典籍)에서도 한두 줄 밖에 거론되고 있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대승·소승 불교의 전파사상 전례가 없던 것입니다. 당나라 시기 삼계교의 실천행과 탄압 과정은 뒤에서 차차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삼계교'에 대한 이야기를 독자 제호에게 하는 것도 삼계교의 사상을 전한 소의(所依)경전 〈지장십륜경(地藏十輪經)〉이기 때문입니다.

〈지장십륜경〉은 신라의 신방(神昉) 법사가 찬(撰)한 것이라는 주장이 근래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는 경의 서문에 적힌 '방(昉)'이라는 한자로 인해서 이뤄집니다. 이는 삼계교 연구의 대가 야부키 케이키(矢吹慶輝)의 연구에서 시작됩니다.

사실 삼계교의 적극적인 전법을 펼쳤던 신방(神昉)은 정토교도들의 맞수가 돼 상당한 비방을 이뤄진 것이 정토교 사적 등에 기록돼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장신앙과 그 사상이 저절로 한국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계교, 中불교 종파 중 하나**
**말법시대 중생 구제행 실천**
**수~당 거쳐 전법 금지 탄압**

한 말씀 덧붙이자면, 신라 시대 말기를 거쳐 고려 시대 전반에 유행한 지장삼부경의 참회경전 즉, 〈점찰선악업보경〉의 불교참회사상의 혁혁한 실존성지인 금산사·법주사·동화사가 선종사찰이 아니라 지장경의 전법도량이었다는 것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앞으로 돌리자면, 삼계교에 정통해서 삼계사(三階師)라고 까지 불리는 신방 법사는 〈지장십륜경〉의 서문을 짓고 있습니다. 〈지장십륜경〉서(序)는, 일본 궁내성본에는 제1권의 앞에 기록하며, 고려대장경본에는 제10권 후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지장십륜경〉의 내용은 말법불교에 있어서 지장신앙이 최상승이며, 그리고 중생의 근기에 따라(對根應病) 법을 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합니다. 보법(普法)의 옹호로 모든 법을 다 포섭하며, 파계한 승려들까지 옹호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림사 주지〉

편백나무의
좋은 기운을
함께
느껴보세요!

- 혈액순환개선, 피로회복, 면연력강화
- 근육통와환, 세포활성화, 퇴행성협착증개선
- 교통사고후유증, 디스크치료에 도움

스님 건강, 편백나무로 지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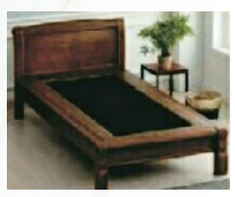
히노끼(편백)나무의 효능

이노 끼(편백)나무 열매가 있. 줄기, 뿌리중에서도 피톤치드 향이 가장 많고
열매를 구애 잘 건조시킨 후 집안 곳곳에 방양제모 사용 가능하며 아로마 테라피로 스트레스 완화.
피부질환 개선, 달서, 불면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

히노끼(편백)나무는 항균효과가 뛰어나(곁에 두는 것만으로도) 세균번식에 가장 취약한
목욕당의 욕조로 사용하면 좋고 인테리어 용품, 주거용 목재, 색상, 침대, 쌀통, 발판, 장난감,
그리고 메계같은 경우는 특유의 향으로 인해 정신을 맑게 하는 효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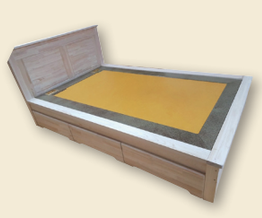
삼림욕을 하면 심신이 안정되는데 그것은 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때문이다.
일반 나무보다 5.5배 가량 많아 편백나무 숲에는 모기가 없다고 할 정도이며,
피톤치드를 가장 많이 내뿜는 나무가 바로 편백나무로서 항균, 탈취, 공기정화의 효능이 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편백 숯침대
100% 참숯





편백침대



편백서랍장



편백찜기



FINE TERRA



규조토 비누
'FINE TERRA'
절찬 판매
판촉용 대량구매시
70% 할인
향긋함과 함께~
기다려지는 세안~~~
알파토 규조토 soap
민감성 피부에 도움

그 린 에 너 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 4 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